

민주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촉각'

전략공천 vs 경선 대치

무공천 책임론까지 분출 혁신당 가세 땐 표심 요동

6월3일 지방선거(지선)와 동시에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남아 있어 후보군 윤곽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성사됐다.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공천 자체에 정치적 책임 논쟁이 불붙고 있다.

다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전략성향 포함)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보선 국면에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적 후보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길 수 있는 카드'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역 경선론을 강조하고 있다. 광역 정치·행정 네트워크와 조직력을 강점으로



문승우 도의장 김의겸 새만금청장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국회의원

내세운 '지역 기반형' 후보다. 그는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후보가 정해질 경우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공개 경계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략공천 카드도 거론되는 '중앙 확장형' 인물이다.

최우대 대변인과 국회의원 경력, 새만금 개발청장 직함은 전국적 인지도와 정책 상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전략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전수미 변호사 역시 전략공천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선거라는 맥락에서 '공정·청렴' 이미지를 갖춘 상징성이 부각된다.

채이배 전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

회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지역 조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처럼 후보군은 '지역 조직형'과 '중앙 전략형'으로 뚜렷이 갈리고 있다. 전략공천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 관세는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상징성 있는 후보를 몰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약 혁신당이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투입할 경우 민주당 내부 갈등과 맞물려 표심 분산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가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뉴시스



카이스트 졸업생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스마트시티 등 분야 한-카자흐 협력 구체화

김윤덕 국토부장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만나 발전방향 모색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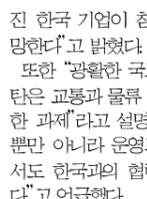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크스탄 삼켄트 복합 화학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



부 주도 사업으로 알타이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신도시 개발과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며 "이러한 역량이 카자흐스탄의 도시 발전 전략과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K-City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통해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와 함께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CC) '중앙아시아 특별 세션'에 카자흐스탄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며, 기존에 축적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가스 플랜트 및 교통 인프라 사업 등에서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질지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스마트 시티와 인프라 협력을 한층 체계화하고, 이를 향후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주요 협력 의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권희성기자

금융·창업·올림픽 연계 핵심 일정 '집중'

도, 23~27일 도정 일정 발표 도민 체감 정책 행보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3~27일 금융·창업·친환경 정책과 도민 소통 행사를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 2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정 일정과 행사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 중심지 조성, 청년 창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통령 타운홀 미팅 등 굵직한 현안이 집중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23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KB금융그룹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은 금융 중심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하며 금융타운 조성,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상생 사업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자치 연구 사업과 기후테크 기업 창업 지원을 함께 추진해 혁신도시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4일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전주 금융허브 출범식이 열린다. 같은 날 전북도와 전주시는 대중교통 수송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대비한 교통 수송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5일에는 김관영 도지사 정례 브리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이 지난 2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정 일정과 행사 계획을 설명했다.

핑이 예정돼 '하이퍼 창업 도시 전북' 전략이 발표된다.

28일에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회원 도시 가입 증서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친환경 올림픽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첫 지급 행사도 열린다. 시범 지역인 장수군과 순창군 가운데 장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간 일정의 마지막인 2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북 타운홀 미팅이 예정돼 지역 현안과 미래산업

전략을 놓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사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제한 공개된다.

이어 3월 1일에는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가 열려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도민 참여 행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철규 대변인은 "다음 주는 금융 협력과 창업 정책, 복지 실현 도민 소통 행사가 연이어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열린 도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창업·친환경·복지 정책이 한 주 동안 집중 추진되면서 전북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1만호 기자

민주 도당 "27일 이 대통령과 전북 발전 전략 논의"

전북서 '타운홀 미팅'... 도민·당원 참여

다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여형 토론 행사를 마련하고 전북 발전 전략 논의에 나선다.

다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전북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마음을 들으며 주제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도당에 따르면 타운홀 미팅은 당원과 도민이 함께 전북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형식적인 정책 설명회를 넘어 질문과 제안,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참여형 공개 토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사에서는 전북 경제와 산업, 균형 발전 과제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열려 있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당 관계자는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참여 안내를 공지했다"며 "이번 타운홀 미팅이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여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의 제안과 의견을 정책과 실천으로 연결해 전북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민참여형 소통 행사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1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혁신당, 중앙당 당직 인선에 전북 정치권 인사 전면 배치



김민영 전 조합장



유기상 전 군수



김승우 지역위원장



이주현 지역위원장



김형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당대표 조국)이 중앙당 당직 인선을 통해 전북 정치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당직 임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에서는 전북 출신 인사 5명이 주요 당직에 발탁돼 전북 정치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임명된 인사는 당대표 특별보좌역 4명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1명이다. 당대표 후보에는 △김민영 전 정읍시 산림조합장 △유기상 전 고창군수 △김승우 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이주현 현 군산시 지역위원장 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위원회 부의장

에는 김왕중 임실군의회원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이 지역 조직을 지켜온 전북 정치권의 책임과 기여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방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중앙당 의사결정 라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북의 목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당 역시 이번 인선을 계기로 핵심 지역 과제를 중앙정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군산 산업 회복, 농생명·발효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전북 주요 현안을 당 정책과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이 한 관계자는 "전북 인사들이 조국혁신당 중앙당 주요 직책에 포진한 만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향후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01만호 기자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하라"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제주·3 평화공원 참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지난 20일 제주·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제주·3의 비극적인 역사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장 대표의원은 현장에서 "제주·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장 대표의원은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미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성격이 동일한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01만호 기자